

장성군 'K-냉동김밥' 수출 시동 건다

황룡면 소재 현대푸드시스템 협업 냉동식품 생산·상품화 시설 확충 상품성 강화 북미·유럽 시장 확대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산 '냉동김밥' 열풍을 장성군이 잇는다.

한국산 냉동김밥은 미국 마트마다 긴 줄을 서야 구매했던 수 있고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선 SNS를 통해 재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군은 황룡면에 소재한 식품제조기업 ㈜현대푸드시스템과 손잡고 냉동식품 해외 수출시장 선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푸드시스템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냉동식품 수출 전문성을 갖춘 즉석식품 제조업체다. 2013년 창업해 중형, 영·호남 지역 편의점 등 1만여 매장에 도시락·김밥·삼각김밥·햄버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 냉동김밥 생산·상품화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을 지원받아 수출용 냉동식품 생산설비를 갖추게 된다.

장성군은 설비가 확충되면 미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냉동김밥의 상품성을 강화해 북미·유럽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냉동식품 식재료로 들어가는 쌀, 채소 등은 모두 장성산 농산물만 사용할 예정이다.



김한중(가운데)이 장성군수가 현대푸드시스템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밥 외에도 잡채, 유부초밥 등 다양한 냉동 간편식 수출도 타진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간편식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출시장 확대 전망도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냉동식품 수출 외에도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성 5개 맛거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식산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9월 '더본외식 산업개발원'을 개원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장성 먹거리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추경 1조342억 편성...민생경제 중점

본예산 대비 946억원 늘어

나주시가 관광·농업·기업유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 1조34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일 시의회로 넘어간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946억원(10.1%) 많다.

일반회계는 854억원이 증액된 9651억원, 특별회계는 691억원으로 92억원이 늘었다.

세입(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부세 274억원, 시·군조정교부금 94억원, 국·도비 보조금 172억원과 지방채 차환을 위한 공공자금 차입금 125억원 등이 반영됐다.

세입의 610억원(71%)은 이미 사용 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 부담금, 지방

채 상환금, 국·도비 반환금이라는 점에서 실제 가용재원은 규모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나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행정·안전 분야 154억원, 문화·관광·교육 분야 144억원, 사회복지·환경·보건 분야 90억원, 농림분야 136억원, 교통·지역개발 분야 30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4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재정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일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일부터 나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경찰 교통사고 참여형 시스템 구축 간담회

화순군은 최근 주민을 위한 정성·참여지안 방안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관련 참여형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화순군과 인근지역을 담당하는 순해보험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과 순해보험사 간 치안파트너 역할을 통한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상호간에 치안통계 공유와 교통사고 예

방 활동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용 화순경찰서장은 "화순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인 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순해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종 교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5만7000㎡ 규모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첫 삽

198억 들여 2025년 완공 봉안당 8500기 등 들어서

고흥군이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추모 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흥군립추모공원 조성부지 공개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고흥을 호령리 산 173-1번지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4월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 규모 및 사업비 현황 보고 등을 걸쳐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최종확정 지어 2023년 11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35억, 도비 4억, 군비 159억)을 투입해 5만7679㎡ 규모로 봉안당 8500기, 자연장지 1883기, 유락동산,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봉안당은 2층 규모로 추모실과 사이버추모관, 사무실, 봉안실 등 연 면적 2943㎡과 잔디형 자연장지는 면적 3477㎡에 조성되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흥군이 지난 22일 숙원사업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떴다. <고흥군 제공>

이용 대상 및 이용료는 올 하반기 '고흥군립하늘공원 조례' 개정을 거쳐 결정 예정이며, 적정한 이용료 산정을 통해 타 지역 추모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고흥군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은 장사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묘지관리 불

편 해소 등 장묘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이 조성되면 고흥의 영령들을 모두 이곳에 모시면서 가족들이 마음 편히 소풍 오듯이 찾아와 고인을 그리워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무안군, 필리핀 실랑시와 친선결연 협약

"농수축산 분야 협력 확대"

무안군이 필리핀 실랑시와 친선 결연 협약을 맺었다.

무안군은 필리핀 실랑시를 방문한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20일 실랑시장에서 알스턴 케빈 A. 아날나 실랑시장과 만나 양 도시 상호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선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안군과 실랑시 양측은 두 지역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실랑시는 필리핀 루손섬 카비투주에 속한 인구 30만명의 도시로서 농업이 주요 산업이다. 실랑시는 수도 마닐라와 가깝고 교통이 발달해 필리핀 경

찰학교, 마약단속극 아카데미, 국제농촌재건연구소 분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무역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도농복합 도시로 꼽힌다.

무안군과 실랑시는 지난 2022년 계절근로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농업 분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실랑시가 지닌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군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두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